

승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월 15일은 조희성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절로서 올해는 42주년 이 되는 해이다. 승리절이 인류에게 주는 깊은 뜻은 너무나 많고 크지만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승리제단 식구들의 마음은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할 것이다.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통을 이기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왔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도 구세주를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또한 클 것이다.



승리절을 맞이하여 인류에게 주는 승리절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태초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지만 6천 년 전 마귀에게 속아 포로로 사로잡힌 불쌍한 하나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오늘날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 기쁨과 희열과 자유함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마귀란 죽음의 신이요 고통과 슬픔을 주며, 사람에게 해꼬지를 하는 영이다.

그러한 마귀를 이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힘을 되찾아 다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인류를 모두 구원하여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승리절은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첫날이 되었다는 뜻이다.

승리절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날이다.

둘째, 승리절은 분열된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첫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체 영이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주체 영이 하나님의 영에서 마귀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분열의 영인 마귀가 통합(하나)의 영인 하나님을 씨줄 날줄로 갈기갈기 찢어서 그 힘을 분산시켰으며 각개로 쪼개진 그 하나님을 마귀의 영육에 가두어 놓고, 나라는 주체 의식으로 들어앉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각기 다르다 보니 이 세상은 나와 내가 다른 분열된 세상이 되어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그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승리절은 분열을 끊고 하나가 되는 길을 열은 것이다.

셋째, 승리절은 사람이면 누구나 마귀를 이기고 이긴자가 될 수 있는 길

열어놓은 첫날이 되었다는 뜻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마귀가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힘을 분산해 놓았다. 그런데 그 분산된 하나님 중에 한 존재가 그 마귀를 이기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육에 갇힌 하나님들이 그 마귀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세상으로 회복하였다는 광복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 하나님의 신을 자신 속에 모신 존재가 나왔다는 것이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인합일(神人合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며, 성불하였다는 것이다. 이긴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긴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넷째, 인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첫날이다

사람은 죽기 싫어하는 속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이조차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울면서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면 삶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존속을 그 목적으로 함에도 마귀에게 살륙되어온 게 인류의 역사이다. 마귀의 목적은 인류를 멸절시켜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에 있다. 만일 조희성님이 이긴자 구세주가 못 되었다면 인류는 마귀의 계획대로 이미 불바다가 되어 우주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승리절은 마귀의 목적을 부수고 인류를 하나님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날이니 인류에게 얼마나 귀한 날인가. 이러한 뜻을 안다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승리절은 죽음의 조류를 영생의 조류로 바꾸어 놓은 첫날이다

불과 수십년 전인 영생의 역사를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그 누구도 영생을 믿지 않았고 입에 올리기도 못했었다. 영생을 말하면 제정신이 없는 도리라고 취급받기 쉬웠다. 이걸 생각한다면 승리제단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승리제단 신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과학자들의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영의 세계에서 나비효과가 적용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승리제단의 영생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뜻깊은 승리절을 맞이하여 조희성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이루는 데에 승리제단 전 신도들은 총력을 기울여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2>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누가 욕을 해도 기쁘고, 매를 때려도 기쁜 것이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매일 그날이 그날이니 짜증스럽고 권태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데에 소망이 없고 살의 욕이 떨어지니 무기력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려 결국은 죽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정년퇴직 후에 급속도로 늙고 병 드는지 아는가? 그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피가 썩기 때문인 것이다.*

인생문제 인생정답

유구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고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다. 학문의 발전과 과학혁명으로 말미암아 물질문명이 인류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정보의 쓰나미 앞에 좋은 정보를 취사선택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만일 독자 여러분들이 영생의 학문을 좋은 정보로써 택한다면 그것만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온전한 학문과 종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종교와 학문은 불안정한 미완성의 종교이자 학문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는 자신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은 것, 즉 반쪽 글자밖에 가르치지 못했다고 열반경 8권 85쪽에서 살하였는데 반쪽 글자로는 글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완성의 학문이라는 고백이고, 성경 또한 같은 뜻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 4:6)”라고 기록하였는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미완성의 학문과 종교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느 학문을 배우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사람이 진실로 원하는 영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완성의 온전한 학문과 종교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논리이다.

그런데 성경과 불경과 격암유록은 이와 별도로 온전한 학문과 종교를 논하는 존재가 출현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긴자의 출현을 말하고 있고, 열반경은 미륵불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고, 격암유록은 정도령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긴자나 미륵불이나 정도령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한 존재를 일컫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

성경, 불경 그리고 격암유록은 이긴자이자 미륵불이자 정도령이 출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출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성경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계 2:26-27)”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긴자는 진리의 철장으로 우상과 미완성의 학문과 종교를 부순 후 천하만국을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여 다스린다는 뜻이다.

열반경에서는 미륵불은 석가모니가 살하지 못한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로불사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격암유록 공음도가에서는 “東西多教 內含舍소 弓乙는 不瀆일세 어서오소 피난차로 不老不死仙境일세” 즉 동서양의 세상에서 어느 학문을 배우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사람이 진실로 원하는 영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완성의 온전한 학문과 종교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논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기뻐 날뛰며 춤추

는 기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구세주 강림을 알거나 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승리절에 관한 말씀

산천초목이 먼저 이긴자를 알아봤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마귀 육에 갇혔던 온 우주가 6천 년 만에 육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6천 년 만에 마귀의 사망권세를 이기니 온 우주가 고통과 사망이 다시 없는 승리의 개가를 영원토록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80년 10월15일, 이 사람이 밀실에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한 그날, 지계를 지고 산엘 가니까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나무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고 도로 서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이 의심을

